

추위가 계속되면서 야채와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과일과 야채를 재배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거의 24 시간 동안 비닐하우스에 난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들면서 그에 따라 야채와 과일 값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무려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상추로, 한 달 전에 1 킬로그램에 2,000 원이었던 가격이

지금은 4,200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